16~18세기 문경 近嵓書院의 변천

-조선후기 서원 변천의 한 사례-

이 병 훈*

Ⅰ. 머리말
Ⅱ. 16~17세기 서당에서 사우로의 변천
1. 16~17세기 중반 죽림서당에서 근암서당으로의 변천
2. 17세기 중반 근암서당에서 향현사로의 변천
Ⅲ. 17~18세기 서원으로의 승원과 추향
1. 17세기 후반 향현사에서 근암서원으로의 변천
2. 18세기 근암서원 추향의 정치적 의미
Ⅳ. 맺음말

국문초록

문경 근암서원은 16세기 중반 상주목사 신잠이 건립한 죽림서당에서 발전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터를 옮겨 중건하면서 근암서당이라 하였다. 1665년(현종 6) 홍언충을 제향하면서 향현사가 되었다. 이후 1669년(현종 10) 이덕형을 병향하면서 근암서원으로 승원하였다. 이처럼 근암서원은 서당에서 서원으로 성장하는 모습과 17~18세기 서원 금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이를 피하여 사우에서 승원했던 서원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울러 김홍미, 홍여하, 이구, 이만부, 권상일 등의 남인계 인사들을 추가로 제향하면서, 도남서원과 더불어 상주 남인계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yukhl@ynu.ac.kr

자리했다. 서원으로 승원한 후 기존의 근암서당은 옛 죽림서당 터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이미 수계소가 운영되고 있었기에 추후 潁水邊으로 옮겨 영빈서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영빈서당은 근암서원과 더불어 산양현과 인근에 거주하는 유생들의 강학과 유식처로 활용되었다.

◈ 주제어
근암서원, 죽림서당, 근암서당, 영빈서당, 이덕형

Ⅰ. 머리말

서원의 설립 목적은 유생들의 藏修와 講學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었다. 여기에 유생의 분발과 흥기를 위해 師表가 되는 先聖·先賢·名儒 등을 제향하는 祠廟를 부설하여 祭享의 기능을 아울러 갖추었다. 반면 사우는 처음부터 祀賢과 風化만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충절인의 공덕을 기리는 報本崇賢 사상과 해당 지방에 공이 있는 인물에 대한 보답과 사현을 통한 향촌민의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였다.[1] 이처럼 서원과 사우의 건립 목적은 처음부터 달랐다.

조선시대 건립되었던 서원과 사우는 약 1,700여 개소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서원은 680개소, 사우는 1,041개소로 사우가 서원에 비하여 더욱 많이 건립되었다.[2] 그러나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서원 제도가 도입되었던 16세기 초반의 중종 이래로 17세기 후반의 현종대까지는 서원이 사우보다 많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역전된 것은 숙종대 부터이며 이후 계속 사우의 건립이 서원보다 많았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붕당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당쟁이 점차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서원 역시 교육과 교화기구로서 기능하던 것이 점차 정치기구화되어 갔다. 자파세력의 확산과 유생들의 公論을 통한 자파 정론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권의 지원 하에 서원의 건립과 賜額이 17세기 중반 이후 더욱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학적 통치 질서의 확립과 士氣의 振作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서원에 대한 免稅와 소속 인원에 대한 免役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良丁募入, 건립비용 각출 등의 弊端이 나타나면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3]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현종

1)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91쪽.
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84쪽.
3) 이에 경상감사 林墰은 1644년(인조 22) 서원 신설시 조정의 허가를 얻도록 요청했으며, 1657년(효종 8) 충청감사 徐必遠 역시 서원 신설시 조정의 허가를 얻도록 요청했

대까지는 서원과 사우에 제향하는 인물에 대한 기준이 대체로 지켜지면서 그 구분은 명확하였다.

숙종대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향촌 사회에서의 기득권 확보라는 두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원과 사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폐단은 더욱 심화되고, 제향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에 서원 新設과 疊設을 금지하는 禁令이 시행되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1741년(영조 17)에는 1714년(숙종 40)의 금령 이후 건립된 서원·사우·영당 및 追享 서원과 사우 등을 훼철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지방관과 금령을 위배한 사림을 처벌하는 조처가 시행되었다. 숙종대 이래로 서원과 사우의 성격은 비슷해졌지만 여전히 서원이 가진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서원을 건립하거나, 금령을 피하여 사우로 건립하였다가 추후 陞院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문경 근암서원은 앞에서 언급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서당에서 사우로, 사우에서 서원으로 변천하였던 조선후기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4]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가 일부 남아 있어서 이를 활용한 사례 연구에 적합한 곳이다. 본 연구는 『近嵒書堂創建古蹟』을 주로 활용하였다.[5] 이 자료는 죽림서당 시절부터 1750년(영조 26)까지의 관련 자료들을 필사한 것으로 초창기 변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18세기 근암서원 인근에 거주했던 권상일의 『청대일기』는 '창건고적'의 내용을 보완해 준다.[6] 본고에서는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그 변천 과정을 개관해 본다.

다. 특히 갑술환국(1694)이후 西人세력의 집권 하에서 1703년(숙종 29) 서원 신설을 금지하는 명이 내려졌으며, 1714년(숙종 40)에는 동일 인물의 疊設과 사액을 금지하였다.

4) 안동에서는 풍악서당이 병산서원으로, 도산서당이 도산서원으로 승원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외에도 16세기 중반 이래로 서원 제도가 확산되면서 도학적 성격의 서당은 추후 서원으로 승원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병훈, 「16세기 안동지역 재지사족의 성장과 서당 건립 활동」, 『민족문화논총』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5) 『근암서당창건고적』에 대해서는 「문경 근암서원 소장 자료 해제」(『한국서원학보』8, 한국서원학회, 2019)를 참조 바람.

6) 『청대일기』는 한국국학진흥원의 번역본(2015, 전4권)을 활용하였다.

Ⅱ. 16~17세기 서당에서 사우로의 변천

1. 16~17세기 중반 죽림서당에서 근암서당으로의 변천

현재의 근암서원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錦川路 351~5[書中里 148~1]에 있다. 이곳은 조선후기의 행정구역상 상주목 산양현 樹介谷이었다.[7] 배향인물은 寓庵 洪彦忠(1473~1508)을 主享으로 漢陰 李德馨(1541~1613), 沙潭 金弘敏(1540~1594), 木齋 洪汝河(1621~1678), 活齋 李榘(1613~1654), 息山 李萬敷(1664~1733), 淸臺 權相一(1679~1759) 등을 並享하고 있다.

근암서원은 1552년(명종 7) 4월부터 1554년(명종 9) 12월까지 상주목사를 역임[8]한 靈川子 申潛(1491~1554)이 1554년(명종 9) 건립한 竹林書堂에서 시작되었다.[9] 임진왜란 이후 近岛書堂에서 鄕賢祠, 근암서원

---

7) 산북면은 1018년(고려 현종 9)이래 상주목 山陽縣에 속하였다. 1906년 상주군에 속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서·산동·산남·산북면을 폐합하여, 산양면과 산북면으로 나누고 문경군에 소속시켰다. 산북면은 남쪽의 비조산과 월방산을 경계로 산양면과 나누고, 산서·산동·화장면 일부를 병합하여 산북면이 되었다. 『삼국사기지리지』에서는 '嘉猷縣은 본래 近品縣(巾禀)인데, 신라 경덕왕 대에 지금의 산양현으로 고쳤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산양의 옛 지명이 '近品'인데, '近嵒'이라고도 했다. 산북면 남쪽에 위치한 서중리는 본동과 웅창마을로 구분되는데, 본동은 임진왜란 당시 밀양박씨 朴守宗이 청주에서 이거하여 마을 중앙에 세거하면서 후에 서원리 혹은 서중리라 했다. 웅창마을은 인천채씨와 전주이씨들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세거하였다. 1650년(효종 1) 溝壑齋 權垓(1611~1682)가 입향한 후 안동권씨 후손들이 본동의 남쪽 艸谷과 樹介谷[근암촌]에 세거하고 있다. 1659년(효종 10)에는 부훤당 김해(1633~1716)가 안동에서 산양현 大道村으로 이거하였으며, 1693년(숙종 19)에는 산양현 근암촌(현 서중마을)로 이거하여, 청대 권상일의 조부인 權以儆의 도움을 받아 마을 북쪽을 개척하여 '보가리'라 칭하였다. 이후 안동김씨 후손들이 본동 북쪽 가단곡 보가리에 세거하고 있다.

8) 『명종실록』권13, 명종 7년(1552) 4월 25일 정축 ; 권17, 명종 9년(1554) 12월 13일 기묘.

9) 『商山誌』(1928), 「書堂」. 여기에는 모두 24개소가 등재되어 서당별로 위치와 창건연대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상주목사 신잠이 설립하였다는 서당은 18개소로 전하지만 여기에는 霞谷·道谷·石門·首陽·魯東·修善·龍門·{氵+穎}濱·梅嶽·梧山·孤

으로 변천하였는데, 이는 17~18세기 서원 신설 금령을 피하여 서당에서 사우를 거쳐 승원하였던 서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10]

신잠에 의해 건립된 죽림서당은 처음에는 山陽縣舍 건너편 熊巖의 산기슭 아래 옛 鴿原寺 터에 있었다. 당시 4칸의 집을 짓고서 堂과 室로 나누고 '죽림'이라 하였는데, 인근에 옛 竹林寺 터가 있었기 때문이다.[11] 1574년(선조 7) 柏潭 具鳳齡(1526~1586)이 이곳을 지나다 산양 사림들의 요청으로 4일간 머물렀을 때 서당 강당을 '尊性堂'이라 명명하고 詩를 남겼다.[12] 그러나 죽림서당은 1593년(선조 26) 왜군에 의해 모두 소실되었다.

1597년(선조 30) 소실된 죽림서당을 옛날 터에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

峯·鳳城·白華·鳳巖·松巖·智川·竹林 등 17개소만이 기재되어 있다. 뒤이어 闢翼·磻溪·芝山·修稧所·存愛院·鄕約祉·鄕約堂을 수록하였다. 이 중 수계소는 '山陽修稧所'로 추정된다. 부훤당 김해의 「修稧所呈文」에는 산양현사 直南1리(웅창마을) 강(금천) 위에 한 채의 당을 수계소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蘭亭修稧'의 의미이며, 그것은 실로 風憲所라고 했다. 또한 옛날에 산양현의 耆老所였다고 한다. 그러나 근암서원의 전신이었던 書堂이 무엇이었는지는 각 자료마다 달리 말하고 있어서 혼선이 있다. 1686년(숙종 12)에 작성된 부훤당 김해의 「영빈서당이설기」에는 '죽림서당'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상산지』에는 신잠이 건립하였던 '{氵+穎}濱書堂'으로 확인된다. 또한 현재의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에는 신잠이 건립하였다는 '죽림서당'이 현전하고 있다. 『근암서당창건고적』에는 서당의 명칭이 나오지 않으며, 서당의 건립 연대도 1544년(중종 39)으로 誤記되어 있다. 이러한 혼선은 김해가 밝히고 있듯이 세월이 오래되고 관련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가장 오래된 김해의 기문을 따르되 이후 변천 과정은 『상산지』와 『근암서당창건고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한다.

10) 서원 신설 금령을 피하여 건립했음은 주25)의 「통본주문」에 잘 들어난다. 한편, 상주목 내에는 서당에서 서원으로 승원한 사례가 많다. 이는 신잠이 16세기 중반 서당을 건립한 이래로 각 면의 유생 교육과 공론 수렴의 장소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서당은 서원제도가 정착하면서 높은 수준의 道學書堂으로 탈바꿈하였으며, 鄕賢을 제향하면서 추후 서원으로 승원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17세기 상주에는 道南·玉城·近嶌書院만이 있었는데, 옥성서원은 首陽書堂이 모태이며, 근암서원은 죽림서당이었다. 18세기 들어서는 봉성서원(봉성서당)이 설립되었다.(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347쪽).

11) 金楷, 『負暄堂集』卷3, 記, 「穎濱書堂移設記」.

12) 具鳳齡, 『栢潭集』卷3, 五言律詩, 「山陽尊性堂感題」; 『근암서당창건고적』(1면) "萬曆甲戌(1574) 具柏潭鳳齡遇訪有詩…"

우고, 七峯 黃時榦(=黃廷幹, 1558~1642)과 西齋 蔡得江(1574~1660)을 有司로 선발하였다.[13] 이들은 옛날의 書堂奴였던 仁希와 倫伊 등 2인을 불러서 옛날 터에 거주하도록 하고, 당시 상주목사에게 요청하여 屯田의 種子로 移轉해 두었던 荒租 1섬을 題給 받았다. 이것을 正租로 헤아리면 11말[斗]이었는데, 기근으로 어려운 면내의 전답에 반을 나누어서 가을에 10여 섬[石]을 얻었고, 이듬해에는 더욱 증가하여 20여 섬을 거두었다. 이렇게 모은 수익으로 穆里에 사는 권씨에게 논을 買得하여 서당에 소속시켰다.[14]

이때 서당의 노복 인희를 宋撿山이란 자가 고소하여 軍額에 뽑혀 들어갔다. 이로 인해 매입한 토지를 관리할 노복이 없었기에 황시간, 月峯 高仁繼(1564~1647), 金進士와 채득강 등이 종사관 趙翊(1556~1613), 金光燁(1561~1610)에게 인희의 면역을 요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체찰사 李元翼(1547~1634)에게 재차 요청하여 노복 인희를 서당에 환속시키고 영원히 침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았다.[15] 당시 서당이 건립된 지 오래되었고 과거에 급제한 자도 드물어서 면내로 옮겨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樹谷이 吉地로 낙점되면서 그곳의 밭을 매입하고, 1603년(선조 31)에 먼저 좌우로 齋舍를 건립하여 유생의 독서처로 삼았다.[16]

---

13) 『근암서당창건고적』, 「蔡西齋得江日記」에 수록된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창건고적'으로 서술한다.

14) 『근암서당창건고적』에 의하면 이 논은 원래 金億, 金希 형제가 강원도로부터 산양현 수곡으로 이주하여 현내의 답 2곳을 매득한 곳이었다. 그러나 속오군에 소속되면서 멀리 도망하였고, 김억의 처부 권씨가 穆里에 살고 있었기에 그 논을 싼값에 사서 서당에 소속시켰다.

15) 李元翼은 1601년(선조 34) 1월 1일 병으로 체직되고, 이덕형이 체찰사로 부임하였다.(『선조수정실록』권35, 선조 34년(1601) 1월 1일 경자). 그러므로 해당 사안은 1598~16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추정된다.

16) 면내로 터를 찾고 있을 때 性智라는 승려가 와서 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길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곳이 수곡이었다. 승려가 서원의 터를 가리키며 '上道에서 이만한 길지가 없다'고 하자 황정간 역시 자신이 보아도 좋은 곳이라고 동의하였다. 그래서 여러 어른들이 모여서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그 땅에 옛날에 경작한 흔적이 있었다. 이에 그 땅의 주인을 문의하니 하나는 朴轄, 하나는 張玄의 밭이라고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이후 1614년(광해군 6) 인근에 거주하며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황시간, 고인계, 김진사 등이 규모가 협소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들어서 主峯의 서북변 樹介谷에 서당을 개축하고자 했다. 그래서 1615년(광해군 7) 2월 9일 卞懷珍 등과 서당의 개축과 이건을 논의하여, 진사 황시간을 산장으로 하고, 徐尙德을 유사, 채득강과 金遠聲을 營造有司로 하여 4월 15일에 瓦役과 工役을 동시에 시작하여 수개월 만에 마쳤다. 이때 강당과 동·서재의 제도를 모두 갖추고, 이곳의 옛 산성의 이름을 따라서 '近嶌'으로 정하였다.[17] 또한 수개곡으로 이건한 후 죽림에 있었던 건물은 '修稧所'로 사용하였다.[18]

이상과 같이 근암서당은 묘우를 제외하고 강당인 존성당과 동재, 서재를 갖추어 이전의 죽림서당 시절보다 규모를 확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규모 외에도 서당의 임원을 산장과 유사라 칭한 것에서도 이미 중건을 하면서 승원을 고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산양현 사림들은 1604년(선조 37)에 이미 홍언충을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 서애 류성용에게 품의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다.[19]

황폐한 돌밭인데 어찌 관계하겠냐고 하므로 그 땅을 서당에서 받는 것을 허락받고(許納) 문서를 작성하였다(『근암서당창건고적』, 「채서재득강일기」). 한편 『상산지』(서당, 「영빈서당」)에는 1603년(선조 31) 영빈서당을 중건하였다고 나온다. 『근암서당창건고적』에서 먼저 좌우에 재사를 건립하였다는 것은 이때의 중건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17) 김해, 『부훤당집』권3, 기, 「영빈서당이설기」.

18) 수계소는 1623년(인조 1) 건립 되었다.(『상산지』, 서당, 「修稧所」). 「영빈서당이설기」에 나오는 내용과 종합하면 죽림에 있던 서당을 수개곡으로 이건 한 후 원래 서당을 개수하여 수계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죽림서당은 1614년(광해군 6)부터 이건을 시작하여 1623년(인조 1)에 완료되었으며, 기존의 죽림서당은 1623년(인조 1)부터 수계소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1664년(현종 5) 근암서당이 향현사가 되면서 서당은 아래채에 방 하나를 빌려 더부살이를 하다가, 1669년(현종 10) 향현사가 근암서원으로 승원 하면서 1687년(숙종 13) 다시 죽림으로 서당을 옮겨 수계소와 합쳤다.(『상산지』,서당, 「영빈서당」) 당시 근암서당은 수계소 아래에 5칸의 집을 짓고, 책상을 들이고 임원도 선출하였다. 이후 자산과 公服도 함께 사용했지만 둘의 성격이 달랐기에 서로 지장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孤山의 좌측 穎水邊에 있는 士人 鄭之杰의 집을 논밭과 곡식 수십 석을 주고 매입한 후 學舍로 꾸미고 '穎濱書堂'이라 하였다. (김해, 『부훤당집』권3, 기, 「영빈서당이설기」)

2. 17세기 중반 근암서당에서 향현사로의 변천

1653년(효종 4) 4월에 산양 사림들을 중심으로 우암 홍언충을 제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났다. 이에 활재 이구가 '근암서당'에 홍언충을 제향하는 일로 상주목내 校院에 通文을 발송하였다. 그는 홍언충의 뛰어난 문장과 곧은 도, 삶의 출처와 절개를 류성용도 칭송하며, 향사하기에 합당하다고 언급했음을 들어 위패 봉안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향교, 道南·玉成書院에서는 한 고을에 3곳의 제향처를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미 鄕賢을 봉안하고 있는 옥성서원[20]이 있으니, 그곳에 合享할 것을 제안하였다.[21] 당시 이들 교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9년이 지난 1664년(현종 5)에 홍언충 제향 논의가 재발하였다.

1664년(현종 5)은 서원 창건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事目이 반포된 후였다.[22] 그래서 前영해부사 全命龍(1606~1667) 등은 1664년(현종 5)

---

19) 1603년(선조 36) 당시에 이미 詳議하여 '근암서원'으로 講定 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산양현 士友들의 의론을 모으는 것이 확실치 않아서 서원으로 하지는 못하였다.(『근암서당창건고적』, 「道內通文(1665)」) 당시 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임란 직후의 황폐한 향촌 사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서원 건립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옥성서원은 首陽書堂을 바탕으로 1630년(인조 8)에 이준 등이 주도하여 1633년(인조 11) 蘭溪 金得培, 靈川子 申潛을 배향하여 서원으로 승원하였고, 1647년(인조 25)에 后溪 金範, 창석 李埈 등을 추배하였다. 이들 네 인물은 당시 상주지역 향현으로서 배향되었다. 김득배의 제향 논의와 김범의 추배 논의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있었기에 각기 鄭經世와 全湜이 이를 중재 및 변론하면서 배향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은 당시 상주지역 향론이 분열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송석현, 앞의 논문, 2015, 351쪽).

21) 『근암서당창건고적』, 「癸巳(1653)四月通本州文(李活齋)」; 「答通」. 1653년(효종 4) 5월 19일의 답통에는 향교 상유사 韓克成·黃霈, 掌議 李命圭, 유사 朴有文·郭孝延, 도남서원 원장 全克恬, 옥성서원 원장 鄭憲世 등이 연명하였다. 이들은 모두 16세기 이래로 상주를 대표하는 사족들로서 청주한·장수황·흥양이·옥천전·진양정씨 가문의 인사들이었다. 도남서원 원장은 전식의 둘째 아들이며, 옥성서원 원장은 정경세의 사촌이었다.

22) 1657년(효종 8) 충청감사 서필원은 서원의 남설로 인해 향교를 등한시하고, 保奴의 冒占, 풍속의 傷敗, 官給 祭需의 과다 등을 폐단으로 지적하였다. 나아가 첩설된 서원

7월 상주목사 朴承健(1609~1667)에게 상서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묘우 건립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23] 이들은 고을의 서당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홍언충을 제향하는 공론은 근래 10년 동안 온전히 갖춰졌던 것이었지만 큰 흉년으로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서당 건물에 한두 칸의 사당만을 짓는 것이기에 이미 터와 재목은 준비했으며, 다만 기와를 굽고 재목을 운반할 약간 명의 丁夫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이들의 요구는 수락되어서 8월 6일에 開基하여 강당의 뒤 터에 묘우를 짓고 '鄕賢祠'라 했다. 사우로 명명한 것은 조정에서 서원의 신설을 일체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였다.[24] 당시 공사 상황은 홍여하의 '상량문'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 "**마을 어른들은 힘을 보태고 재물을 모으며, 많은 선비들도 책을 내려놓고 일을 돕네. 재실·부엌·목욕탕을 갖추니, 申侯의 옛 모범을 더욱 넓히네.** 축문 읽고 薦祼하며 성대히 제사 지내니 이에 **서애 문하의 正論을 준수했네.** 엄연히 빛나고 새롭게 얽었기에 地勢도 매우 받들고, 정결하게 제사지내 내려진 복이기에 향기가 널리 퍼지네. 이에 길일을 지나, 긴 들보 올리기를 시작하네."[25]

이를 보면 향현사(근암서당)가 서애의 학통을 계승했음을 분명히 하였

은 철거하고 건립을 하려면 반드시 조정의 허락을 받도록 주장했다. 그리하여 서원과 향현사를 건립할 때는 반드시 조정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효종실록』권18, 효종 8년 6월 21일 임진)

23) 『근암서당창건고적』, 「甲辰(1664)七月日呈牧伯文」; 洪汝河, 『木齋集』卷5, 說, 「山陽書堂立社呈文(代儒生作)」. 이 정문의 소수는 전영해부사 전명룡이었지만, 상서는 목재 홍여하(1620~1674)가 작성하였다. 이외에도 홍여하는 사당의 상량문도 작성하였다.

24) 『근암서당창건고적』, 「通本州文」. "…**朝家申命 切不許創建書院 故不敢違 愼重之憲 乃於書堂後址** 規營廟宇 定以爲鄕賢祠 上以盡祭社之誠 下不失黨膠之儀矣. 旣復以此陳告于明府 而明府嘉之特典 丁夫以資工役 玆又吾黨之幸也…"

25) 洪汝河, 『木齋集』卷6, 上樑文, 「寓庵洪先生立祠上樑文」, "…鄕老出力而鳩材 多士釋經而敦事 齋廬庖湢之備設 益恢申侯之舊規 尸祝薦祼之縟儀 聿遵厓門之正論 儼輪奐而創構 面勢甚尊 精脂蠟而降歆 芰芬旁達 玆歷吉日 將擧脩樑…"

다. 그리고 사당만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물 규모를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때 鄕老들이 재물을 내고 많은 유생들도 공사를 살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향현사는 사림의 노력과 지방관의 협조로 건립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향현사를 유지·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현사 측은 재차 지방관에게 의지하였다. 즉 1664년(현종 5) 9월에는 유생들의 居接시 供饋와 묘우의 守直을 위해 山東의 장정 2명을 특별히 소속시켜 주길 요청했고, 10월에는 전명룡 등이 수직과 庫直하는 烟戶 5명의 군역을 면제해주길 청하였다.[26]

한편 홍언충을 제향하면서 향현사라 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曺高原은 근암서원에 통문을 보내어 賢人을 받드는 것에 서원과 향현사가 있지만 홍언충의 제향처를 사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는 일찍이 모든 향부로들이 류성용에게 품의하여 홍언충을 제향하는 서원의 건립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에 비록 사우에 제향되지만 事體로 보아서 옥성서원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다.[27] 이처럼 향현사를 옥성서원과 대등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향현이라도 서원과 사우에 제향되는 차이가 곧 해당 인물의 평가를 대변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향현사에서는 1665년(현종 6)에 봉안식이 거행된다는 것을 상주와 도내의 사림들에게 통보하였다.[28] 당시 봉안제문은 류성용의 고제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썼다.[29]

이상과 같이 17세기 상주지역은 읍치의 도남서원과 남쪽의 옥성서원을 중심으로 사족들이 분립하고 있었다.[30] 이들 입장에서는 향권이 더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산양현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던 북쪽의

26) 『근암서당창건고적』, 「甲辰九月呈牧伯文」; 「甲辰十月呈牧伯文」.
27) 『근암서당창건고적』, 「曹高原通文」.
28) 『근암서당창건고적』, 「通本州文」·「道內通文」. '도내통문'을 보면 봉안례는 1665년(현종 6)에 거행되었다. 봉안일은 본월 초3일이라고만 확인된다. 정확한 월은 알 수 없지만 춘향 이전인 1~2월로 추정된다.
29) 『近岳書院事蹟』, 「洪彦忠 奉安文」.
30) 송석현, 앞의 논문, 2015, 333~360쪽.

사족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홍언충의 사당 건립을 반대했던 것이다. 이에 산양 사림들은 재차 사당 건립을 추진할 때에 이전과 달리 독자적으로 상주목사의 허가를 받은 뒤 향내·외에 통보하였다. 실제 죽림서당의 이건[황정간·서상덕·김원성·채득강]과 홍언충 제향을 주도[이구·전명룡·채극계·권구]하였던 인물은 산양현과 그 인근에 거주하던 자들이었다.[31]

홍언충의 제향 과정에서 상주 사림들이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던 산양 사림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양의 사림들은 이를 독자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웠기에 상주와 연고가 있고, 지역 내 異見이 없을 儒賢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그래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덕형을 봉안하기로 정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덕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홍여하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Ⅲ. 17~18세기 서원의 승원과 추향

1. 17세기 후반 향현사에서 근암서원으로의 변천

산양현 사림들은 1669년(현종 10) 11월 7일에 이덕형을 병향하고, 근암서원으로 승원하였다. 당시 봉안문은 홍여하가, 상향축문은 김해(1633~1716)가 지었다. 이덕형은 그의 陳外家가 상주이며[32], 鄭經世(1563~1633)와 출처를 고민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이덕형의 사후에 정경세는 그의 行狀을 지었으며, 蒼石 李埈은 유고를 정리하여 문집의 발문을 썼다. 이는 이덕형이 활동할 무렵 영남사림, 특히 서애-정경세 문인들과의 유대가 남달랐음을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주목

31) 송석현, 앞의 논문, 2015, 358~359쪽.
32) 조부 李振慶은 진사로서, 이덕형이 현달하여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조모는 진사 金胤宗의 女 尙州金氏이다. 조모의 묘소가 상주 內西面 開元里에 있었다.

사로 부임한 이덕형의 아들 李如珪는 1634년(인조 12) 상주에서 『漢陰集』을 간행하였으며, 손자 李象鼎 역시 1668년(현종 9) 상주에서 重刊本을 간행하였다. 이처럼 상주에서의 이덕형 추숭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의 제향에 관한 논의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산양현 사림들은 홍언충을 제향한 향현사에 그의 병향을 꾸준히 제기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홍여하였다.[33] 이덕형을 병향하던 당시의 명분은 홍여하가 眉叟 許穆(1595~1682)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난다.[34] 상주 특히 산양현 사림들은 상주가 이덕형의 진외가로서 그를 상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고을의 여러 향현들과 그의 同榜들은 모두 제향하는 곳이 있지만, 이덕형만 명망에 비해 제향처가 없으니 홍언충과 함께 근암서원에 병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산양 사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기구로 홍언충을 제향하는 향현사를 건립했지만 도남·옥성서원에 비교하여 그 격이 낮은 것에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승원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허가를 얻을 명분이 필요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덕형은 당대의 名儒로서 아직 제향된 바가 없었으며, 상주와는 혈연이 있었기에 향내외의 공론을 형성하고 나아가 서원 첩설의 혐의도 피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었다.

이에 1669년(현종 10) 산양현 사림들은 승원은 斯文의 큰일이므로 일을 시작할 때 뜻을 같이하는 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신중히 진행하려고 상주 사림들에게 가부를 문의했다.[35] 이처럼 향론을 결집한 후 도내로 통문을 발송하여 11월 7일에 이덕형을 병향한다고 알렸다.[36] 그러나 묘

33) 오용원, 「한음 이덕형의 후대 평가와 추숭사업」, 『한음 이덕형의 학문과 사상』, 해드림출판사, 2017, 550~552쪽. 홍여하는 갑자사화 당시 피화된 洪貴達(1438~1504)의 5대손이며, 향현사에 제향된 홍언충은 홍여하의 고숙조가 된다. 홍여하의 부친 洪鎬(1586~1646)는 정경세의 문인으로서 관직에 진출한 후 이덕형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당시 이덕형은 홍호를 단순히 젊은 관료가 아닌 國士로 예우했다.(홍여하, 『목재집』권8, 「先考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府君家狀」.) 이로 보아 홍여하 역시 이덕형을 깊이 존숭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도 홍여하는 이덕형을 조선 제일의 문장가, 역사가로 인식하고 있었다.(홍여하, 『목재집』권4, 「答李大方榘」).

34) 홍여하, 『목재집』권4, 「擬上許眉叟」.

35) 『근암서당창건고적』, 「奉漢陰先生時通本州文」.

우 건립에 많은 물력을 소모했던 상황이었기에 서원을 방문하는 인사들을 供饋하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실제 湖翁 曺挺融(1598~?)은 도내의 오랜 친구와 지방관들에게 보낸 통문에서 근암서원은 물력이 부족하여 묘우를 겨우 건립하고, 부엌과 청사에는 아직 그릇과 물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하며, 서로가 형편에 맞춰 綿布와 음식·소금을 보내주길 요청하였다.[37]

이와는 별도로 향현사 유생들은 관찰사 민시중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유생들은 곧 봉안일을 맞이하는데 도구와 典守할 남자종과 밥을 지을[炊爨] 여자종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하니 관찰사가 米布 약간을 상주와 함창, 용궁에서 나누어 주도록 뎨김을 내려서 봉안일에 선비들을 공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도내 각 읍 가운데 屬公奴婢 3口를 내려주어 장차 서원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하였다.[38] 이처럼 당시 승원은 향현사의 여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여러 인사들과 지방관의 도움으로 봉안례를 거행할 수 있었다.

승원한 이후 많은 선비들이 찾게 되면서 기존 건물(재실·강당)이 협소하여 遊息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1679년(현종 5) 文會에서 건물을 중수하기로 결정하고, 각자 물력을 부조하기로 했지만 흉년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문경현 許山 기슭에 있는 폐암자의 재목과 기와를 옮겨와서 서원을 개수하는 데 사

36) 『근암서당창건고적』, 「道內通文(己酉, 1669)」.

37) 『근암서당창건고적』, 「通道內知舊使君文(己酉, 1669)」. 조정융의 외조부는 예천에 거주하던 이황의 종손자 李閱道(1538~1591)이다. 아버지는 梅湖 曺友仁(1561~1625)으로 상주 매호(사벌면 매호리)에 우거하였다. 조정융은 전적, 형조좌랑, 울진현령, 공조정랑, 정선군수, 예조정랑, 고원군수, 성균관사예 등의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38) 『근암서당창건고적』, 「呈方伯文」. 1669년(현종 10) 6월 22일까지는 養拙齋 沈梓(1624~1693)가 재임했으며, 그 이후에는 認齋 閔著重(1625~1677)이 재임하였다. 한편 상주목사는 6월 5일까지 李楚老(1603~1678)가 재임하고, 10월 21일 韓壽遠(1602~1669)이 부임하였다. 다만 한수원이 부임 직후 사망함으로써 이듬해 1월 28일 吳始壽가 부임하였다. 『창건고적』에 당시 상주목사에게 올린 정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관찰사는 민시중으로 보인다. 민시중은 송시열의 문인이자, 閔鼎重·閔維重의 형이었다.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는 전결을 조정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치적을 올렸다.

용할 수 있도록 상주목사에게 요청하였다.[39]

이상과 같이 근암서원은 상주목의 세 번째 서원으로 승원한 후 산양현 사림들의 강학과 유식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병향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빈약한 재정 상황은 향후 근암서원의 운영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 있었다.

2. 18세기 근암서원 추향의 정치적 의미

1) 17~18세기 상주지역 사족 동향

상주지역 사족들은 1616년(광해군 8) 도남서원의 盧守愼(1515~1590) 追配와 1631년(인조 9) 옥성서원의 金得培(1312~1362), 金範(1512~1566) 제향시에 이견이 나오면서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었다.[40] 그럼에도 불구하고 1669년(현종 10) 근암서원이 설립되기 이전 읍치의 도남서원과 남쪽의 옥성서원을 중심으로 그곳의 사족들이 향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한편 17세기 이래로 상주 북쪽에 위치한 산양현과 인근의 사림들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1653년(효종 4) 홍언충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두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상주 사족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서원 건립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17세기 초중반 이래로 상주지역 내 사림들은 점차 분열되고 있었다.

상주지역 사족 사회는 류성용이 1580년(선조 13) 상주목사로 부임하여 정경세, 이준, 全湜(1563~1642) 등과 같은 제자들을 양성한 이래로 17세기까지 퇴계-서애 계열의 남인계 사족들이 향권을 주도하였다.[41]

---

39) 『근암서당창건고적』, 「呈牧伯文(기미, 1679)」. 이처럼 폐사찰이나 폐암자의 건물 자재나 터를 활용하여 건물을 건립하거나 개수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수환, 「16세기 안동지역 서당의 경제적 기반」, 『조선의 서당에서 배우는 사회적 교육의 지혜』, 새물결, 2018, 219~223쪽).

40) 송석현, 앞의 논문, 2015, 349~352쪽.

한편으론 申碩蕃(1596~1675)을 중심으로 그의 문인이었던 黃尙中(1619 ~1680)과 송시열의 문인 채하징, 昌寧成氏[42] 가문 등의 서인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상주에서 남서인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정경세의 사위 宋浚吉(1606~1672)이 우거했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들 두 집단은 중앙의 당쟁이 격화되자, 17세기 중반 이후 독자적 노선을 지향하면서 점차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정경세와 이준의 문인이었던 신석번은 당시 영남 서인을 대표했다. 그는 송준길의 천거로 중앙정계에 등용[43]되었고, 1666년(현종 7)에는 류세철 등의 영남 남인들이 송시열의 예론을 공박한 상소를 반박하는 「宋時烈辨誣疏」를 올려 영남 남인들과 대척하였다. 당시 변무소는 成灚의 손자인 成震昇이 疏首를 담당했다. 아울러 신석번의 제자였던 황상중은 1663년(현종 4) 「牛栗陞廡疏」의 소수로 참여했다.[44] 그의 가문은 대대로 퇴계학통의 남인 집안으로 황시간(1558~1642)은 寒岡의 문인으로, 정경세·전식·이준과 더불어 商山四老로 칭송되었다. 그러나 황상중은 일찍부터 서인계와 종유하였고, 상주의 대표적인 서인 가문인 창녕성씨와 통혼하였다.[45]

함창에 거주하였던 송시열의 문인 蔡河徵(1619~1687)은 갑인예송

41) 실제 정경세는 상주목 최초의 서원인 도남서원 건립을 주도하였으며, 상주지역에 퇴계-서애 학맥의 도통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상주목 남쪽에서는 이준 등이 주도하여 1630년(인조 8) 首陽書堂에 김득배, 신잠을 배향하여 서원으로 승격하였고, 1647년(인조 25)에 김범, 이준 등을 추배하였다. 이들 네 인물은 당시 상주지역의 향현으로서 배향되었다.

42) 창녕성씨는 서경덕과 이이의 문인이었던 성람이 상주에 정착한 이래로 그의 후손들은 서인계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전통적인 남인지역에서 그 기반을 확립해 나갔다. 창녕성씨(청죽공파)의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람[서경덕·이이]-성여훈[김상헌]-성호영·호징[송시열]·성진승·진항-성만징·성맹징·성문징·성원징[권상하] (채광수, 「창녕성씨 청죽공파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원우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참조)

43) 『현종실록』권1, 현종 즉위년 11월 1일 무오.

44) 『승정원일기』178책, 현종 4년 4월 5일 임임.

45)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23, 역사실학회, 2002, 96쪽.

(1674, 현종 15) 이후 송시열이 유배되자 그를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慶興으로 유배되었다.[46] 반면 산양 죽림의 蔡獻徵(1648~1726)은 李玄逸의 문인으로 남인계열에서 활동하였다.[47]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성람의 현손 성만징이 1701년(숙종 27) 「沙溪辨誣疏」와 1702년(숙종 28) 송준길을 제향하는 興巖書院 창건을 주도하였다. 흥암서원은 1705년(숙종 31) 사액되고[48], 1716년(숙종 42)에 다시 어필사액과 致祭가 있었다.[49] 어필 사액과 치제는 흥암서원에 대한 국왕의 관심이 컸음을 나타낸다.

이를 반영하듯 당시 노론의 영수였던 權尙夏(1641~1721)는 직접 「興巖書院御筆碑後記」를 작성하고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흥암서원은 영남지역에 서인세력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상주에서는 1708년(숙종 34) 화동면 義微書堂에 김상용·상헌 형제를 제향하는 西山書院이, 1711년(숙종 37)에는 화서면에 성람·신석번·趙振(1543~1625)·申碩亨·成汝穗·金三樂을 제향하는 雲溪書院이 건립되었다. 나아가 1747년(영조 23)에는 노론계 인사들로만 구성된 『鄕案』이 작성되었다.[50]

이처럼 상주는 17세기 중반 이후 영남지역 서인 내지 노론의 근거지가 되면서, 18세기 들어와서는 그 세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이에 상주지역 남인계도 유기적으로 대응하였다. 1669년(현종 10) 근암서원의 이덕형 병향과 승원은 상주내 남인 세력의 거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자파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51] 당시 남서

46) 『숙종실록』권7, 숙종 4년 7월 2일 경자 ; 7월 3일 신축 ; 7월 5일 계묘 ; 7월 22일 경신.

47)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 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143쪽.

48) 宋浚吉, 『同春堂集』續集 卷10, 附錄, 「年譜」. "壬午七十五年 尙州興巖書院成. 後四年儒生等上疏請額 時書院疊設有禁 李相頤命白上曰 方今朝令雖嚴 若如宋某大賢 不宜在此限 上特命賜額"

49) 『승정원일기』498책, 숙종 42년 10월 14일 경자 ; 『숙종실록』권58, 숙종 42년 10월 14일.

50) 채광수, 앞의 논문, 2016, 402쪽.

인 간의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도남서원은 상주의 수원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근암서원 역시 도남서원과 공조하면서 상주지역 남인계 유생들의 공론을 취합하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또한 18세기 이래로 남인계 향현들을 꾸준히 追享하면서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52]

실제 근암서원에 처음 제향되었던 홍언충은 조선전기의 인물로 당파와 무관하였다. 그러나 이덕형을 비롯하여 이후에 병향된 인물들은 남인계 학자 관료들이었다. 김홍민은 이이를 탄핵하였던 인물이며, 홍여하는 송시열 세력과의 알력으로 관직에서 쫓겨났었다. 이구는 이이의 성리설을 강하게 비판했었으며, 퇴계의 학문을 존숭한 이만부는 상주로 이거한 인물이지만 그의 부친 李沃은 송시열의 극형을 주장하였던 대표적 기호 남인이었다. 권상일은 퇴계를 私淑하고 『퇴계언행록』을 교열했으며, 이만부와 교유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기호의 남인들과도 교류하였다. 또한 서당 시절부터 서애의 학맥을 계승했음을 표방해 왔었고, 18세기 초반에는 김장생의 승무반대소 소청과 윤지술 등의 노론을 배척하는 유소의 소청이 설치되었던 상주의 대표적인 남인계 서원이었다.

2) 홍여하·김홍민 추향과 그 의미

홍여하를 추향하기 위한 논의는 1700년(숙종 26) 12월에 사계 김장생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공론이 형성되어, 1701년(숙종 27) 2월 소청을 설치한 근암서원의 道會에서 발의되었다. 당시 처음 안동 사림들에게서 추향 의견이 나온 후 용궁과 상주[산양현]지역 사림들도 거듭 찬성하였다. 이에 공론을 정하여 근암서원에서 9월 中丁에 봉안하는 것으로

51) 송석현, 앞의 논문, 2015 및 오용원, 앞의 논문, 2017 참조.

52) 도남서원은 1616년(광해군 8) 노수신·류성용을 추향하고, 1635년(인조 13)에 정경세를 추향하였다. 나아가 1677년(숙종 3)에 사액되면서 상주지역 남인들의 구심체가 되었다. 한편 상주내 노론 세력들은 18세기 이래로 도남서원의 운영에 개입하면서 심각한 鄕戰을 유발하였다.(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 활동」, 『민족문화논총』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도내에 통보하였다.[53] 이와는 별도로 3월에 근암서원 원장 申弼成, 재임 李天成, 蔡命龜 등이 향교와 도남·옥성서원에 재차 통보하였다.[54] 그러나 이들 세 곳에서의 답통은 바로 오지 않았다. 당시 도회에서 결의한 홍여하의 병향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향교와 옥성서원에서는 5월 1일에 稟目을 보내와서 고을의 장로들과 문의한 결과 소청 도회에서의 공론을 존중하지만, 三位[홍언충·이덕형·홍여하]를 병향하는 막중한 일을 향내에 논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였다.[55]

또한 전 경주부윤 孫萬雄(1643~1712)도 발문을 보내와서 상주의 사론을 듣지 않고 소청에서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향내에서 비난이 있다고 전했다.[56] 그는 이를 수습하는 방안으로서 이미 여러 선대의 현인들이 의논하여 정한 김홍민의 옥성서원 제향이 位次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니, 그를 근암서원에 병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옥성서원에서는 1636년(인조 14) 后溪 金範(1512~1566)의 추향 논의[57]가 있었지만 1647년(인조 25)에서야 이준과 함께 추향되었다. 이후 50여 년이 지나서 김홍민(1540~1594)의 추향이 진행되었다. 김범은 김홍민의 부친이었기에 위차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준은 김홍민보다 나이가 어렸다.

아마도 당시에 향선배였던 김홍민을 나이순에 따라서 앞에 두자는 의견과 이미 배향된 위패를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옥성서원은 興陽李氏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기에 이

53) 『근암서당창건고적』, 「道內通文 辛巳(1701)二月」. 이 통문은 소청 공사원 金俠 등 40여 인과 소수 金侃 등이 연명하였다.

54) 『근암서당창건고적』, 「本院通校院文 (三月)」.

55) 『근암서당창건고적』, 「鄕校玉成稟目(5월 1일)」. 당시 향교 上齋는 洪道達, 장의 趙世頊·蔡夢徵, 옥성원장 李泰到, 재임 韓翼明·金杰이었다. 도남서원은 임원이 不齊하여 의견을 낼 수 없었다.

56) 『근암서당창건고적』, 「前府尹孫萬雄跋」.

57) 李坱, 『月澗集年譜』卷1, 崇禎9年丙子(1636) 9月. “會鄕校 議追享后溪金先生範于玉成”; 肅宗大王三十六年庚寅(1710) 11月27日丁巳. “士林奉位版追享于玉成書院”. 1710년(숙종 36) 11월 27일에는 李坱(1558~1648)을 추배하였다.

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었던 것으로 보인다.[58] 또한 1710년(숙종 36) 이준의 형인 月澗 李埰(1558~1648)의 追享이 원활히 진행된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상주내 영향력이 컸던 상산김씨와 흥양이씨 가문의 대립은 결국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였다. 즉 도남·옥성서원에 추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서원의 모색이 필요했고, 근암서원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근암서원은 홍여하 병향의 공론을 수렴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상주목 사림들의 불만이 컸던 때였다. 여기에 상주목 내에서 남인계와 서인계 사이의 대립이 첨예한 시기였다. 그렇기에 남인계 내부의 분열은 서인에게 향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손만웅이 제시한 절충안은 바로 옥성과 근암 두 서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상주목내 남인들의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에 근암서원 측은 손만웅의 의견을 따라서 재차 상주 교원에 통문을 보내어 김홍민과 홍여하의 추향을 문의하였다. 그러자 향교와 도남·옥성서원에서는 홍여하·김홍민을 함께 병향하는 것에 찬성하는 답통을 보내왔다. 나아가 소청에서 정한 9월의 봉안일이 급박하므로 행사 준비를 위하여 11월 중 길일을 잡아 거행하고, 그 사이에 한번 제회하여 향론을 갖추자고 제안하였다.[59]

그러나 8월에 인현왕후가 승하하면서 봉안례는 國葬 이후로 연기되었다.[60] 상주 사림들은 1702년(숙종 28) 2월 26일 옥성서원에서 향회를 개최한 후 4월 下丁에 김홍민과 홍여하를 봉안하기로 정하고 도내에 통

58) 1692년(숙종 18) 산사태로 매몰된 옥성서원은 위판을 修善書堂으로 옮겼다. 당시 수선서당은 흥양이씨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다.(송석현, 앞의 논문, 2015, 351쪽.)

59) 『근암서당창건고적』, 「同年八月鄕校道南玉成答本院通文」. 이때 통문을 보내온 인사들은 향교 上齋 孫景郁, 掌議 趙世頊·李星緯, 齋任 金南紀·蔡命龜, 도남원장은 金楷, 재임 蔡似甲·趙涵, 옥성원장 李泰至, 재임 韓翼明·金杰 등 이었다. 또한 김홍민·김홍미 형제는 이덕형의 조모 상산김씨의 먼 친척조카로서 외족으로서의 척연과 지연을 넘어 학문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이덕형은 이들 형제와 종유하였는데, 특히 김홍미와 친밀하였다.(김학수, 「한음 이덕형의 사우 및 교유관계」, 『한음 이덕형의 학문과 사상』, 해드림출판사, 2017, 254~258쪽) 이처럼 김홍민의 근암서원 추향에는 이덕형과의 특수한 관계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60) 『숙종실록』권35, 숙종 27년 8월 14일 기사 ; 『근암서당창건고적』, 「辛巳八月遭」.

문을 발송하였다.[61] 이와는 별도로 근암서원에서는 3월 3일에 제회하여 상주와 인근의 교원에 봉안일을 재차 통보하였다.[62] 또한 근암서원 회중에서는 이현일(1627~1704)에게 봉안문을 부탁했다.[63] 그러나 이현일이 건강상 문제로 거절하면서, 원장 신필성이 4월 1일 霞谷 權愈(1633~1704)에게 봉안문을 부탁하였다.[64] 또한 蘆洲 金兌一(1637~1702)에게는 축문과 고유문을 부탁하면서, 금번 추향이 금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구하였다.[65] 어렵게 거행되는 봉안례가 금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이에 김태일은 금령은 신설과 첩설에 관계된 것이며 이번 추향은 금령 이전에 설립된 곳에서 시행되기에 금령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축문과 함께 보내왔다.[66]

한편 근암서원 임원들은 상주목사 李益著에게 정문하여 4월의 봉안일에 참석하는 유생들을 공궤할 수 있도록 還穀 米租를 특별히 題給해 주길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하던 촛대와 향합이 낡아서 교체하고자 했으나, 경내에 목기를 제작하는 工人이 부재했다. 그래서 안동 鄕射堂 首席에게 부탁하여 그곳의 공인이 촛대 2쌍과 향합 2좌를 제작하여 보내주길 요청하였다.[67] 원임들은 4월 15일에 봉안례를 점검하고, 4월

61) 『근암서당창건고적』, 「壬午二月二十六日會于玉成書院沙潭金先生奉安事 發道內通文」. 이날 모임에서는 공사원 李善到, 李天成 등을 선발하고, 會員으로 전부윤 손만웅, 유학 金五益, 高漢羽, 전별검 申弼成, 전참봉 金宇泰, 생원 金時泰, 유학 李泰至, 金是漢, 康世楷, 康汝楷, 韓翼明, 李再潤, 金是澍, 高待望, 李善至, 金世萬, 權游, 李天成, 高必大, 찰방 孫景錫, 유학 蔡允中, 金杰, 宋之奎, 宋之斗 등이 연명하였다.

62) 『근암서당창건고적』, 「通本州校院各書堂及隣近學宮文」. 당시 근암서원 회원은 유학 李胄萬, 高待羽, 전별검 申弼成, 전참봉 金宇泰, 유학 蔡荊龜, 高漢瞻, 洪后謙, 權深, 李日成, 高漢望, 高師聖, 權游, 高雲馹, 생원 李師蓍 등이었다. 이들 외에도 권상일 역시 모임에 참여 하였다(권상일, 『청대일기』, 임오 3월 3일).

63) 『근암서당창건고적』, 「會中上李南岳書」 ; 「李南岳玄逸答書」.

64) 『근암서당창건고적』, 「別檢申弼成上權判書書」 ; 「權判書愈答書」 ; 권상일, 『청대일기』, 임오(1702) 4월 7일.

65) 『근암서당창건고적』, 「會中上金司諫書」 ; 「金司諫兌一答書」 ; 「會中再書」 ; 「金司諫再答」.

66) 金兌一, 『蘆洲集』卷3, 書, 「與申退伯弼成書 壬午(1702)」 ; 祝文, 「近岳書院追享時告由文 院舊享洪寓庵 李漢陰兩公 壬午夏追配洪木齋 金沙潭兩賢」. 제문은 권상일의 아버지 權深이 받아 왔다.(권상일, 『청대일기』, 임오 4월 12일 ; 4월 23~26일).

23일에는 각 읍에서 모인 300여 인이 제회를 개최하였다. 4월 25일에는 고유제를 행하였는데 고유문은 김태일이 지었고, 위판은 張大杰이 썼다.[68] 그리고 4월 26일에 봉안례를 거행하였다.[69] 이와 같이 1702년(숙종 28)에는 김홍민, 홍여하를 추향하고, 1786년(정조 10)에는 이구, 이만부, 권상일을 추향하였다.[70]

이상과 같이 산양현 유생들은 죽림서당을 근암서당 → 향현사 → 근암서원으로 격상시켜 나갔다. 17세기 당시 상주목내에 도남·옥성서원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북부의 근암서원 건립은 산향현과 그 인근 유생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수처로서 기능하였다. 승원과 추향 과정에서 드러나듯 상주내 기존 교원은 근암서원을 견제한 측면도 있었다. 이것은 향내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서인(노론)계가 성장하면서 남인계의 분열을 막고, 여론을 결집하기 위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승원과 추향이 진행되었다. 18세기 말에 추진된 추향은 기존 남인 세력에 우호적인 정조의 정책에 편승하여 진행된 면이 있다. 상주목내 노론 세력과 대립이 커져가는 가운데 남인계 향현을 추향하여 재차 남인계의 결집과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18세기에 추향된 인물들은 근암서원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었다. 김홍민을 제외하고 모두 근암서당의 산장과 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재임 당시 이구는 근암서원의 전신인 향현사 건립을 주도하였으며, 홍여하는 서원 승원을 주도하였다. 이만부와 권상일은 근암서원의 초창기 건물과 강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식산과 청대는 당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전직 관료이자, 학자로서 도내에서 위상이 높았다.

---

67) 『근암서당창건고적』, 「呈牧伯文」 ; 「通安東鄕射堂文」.

68) 권상일, 『청대일기』, 임오(1702) 4월 15일 ; 4월 23·25·26일.

69) 『근암서당창건고적』, 「禮成祭祝文 金司諫兌一(壬午四月二十六日丁丑)」 ; 「金沙潭洪木齋兩先生奉安祭文 權判書愈」. 霞谷 權愈(1633~1704)는 홍여하·김홍민의 봉안문과 홍여하의 묘갈명을 지었다. 둘의 상향문은 金楷가 지었다. 김홍민의 행장은 그의 동생 金弘微가 지었다.

70) 『근암서당창건고적』에는 이구, 이만부, 권상일의 추향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들의 추향 과정은 추후 보완할 것이다.

이외에도 이구와 홍여하, 권상일의 가문은 산양현에 있었으며, 이만부는 한양에서 상주목내로 이주해왔지만 산양현 사림들과 가깝게 지내었다.[71] 근암서원은 이들을 병향함으로써 상주내 남인계 서원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서원 운영에 해당 가문들의 협조를 강화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후손들 역시 문중 원사의 건립이 보편화되던 시기에 신설과 첩설 금령을 어기지 않고, 해당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대로 운영에 관여해 온 근암서원의 추향에 찬성한 측면도 있다.

Ⅳ. 맺음말

한국에서 서원이 건립되는 과정은 경주 옥산서원, 현풍 도동서원과 같이 처음부터 서원으로 건립하거나, 안동 병산서원, 예안 도산서원과 같이 제향인이 생전에 강학하던 서당, 정사 등을 매개로 사후에 서원으로

71) 이구는 황시간의 외손으로서 병자호란 이후 산양에 내려와 정착하였다. 그는 홍언충 제향처 건립을 발기하고, 1650년(효종 1) 「우율문묘종사반대소」를 직접 작성하는 등 산양에 정착한 이래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박인호, 「활재 이구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조선사연구』22, 조선사연구회, 2013). 이만부는 1697년 상주 외답 노곡으로 卜居하였다. 그의 조부 李觀徵은 의성에서 태어나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고, 부친 李沃은 淸南을 대표하는 인사였는데, 許穆과 柳元之 등에게 배우면서 서애계 학인들과 교류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이만부 역시 柳千之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갑술환국 이후 그의 처가가 있는 상주로 내려왔다. 이처럼 그의 가계는 근기 남인을 대표하였기에 그는 상주 정착 이후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김주복, 「식산 이만부의 학문형성과 교류양상 일고찰」, 『한문학보』19, 우리한문학회, 2008). 또한 1725년(영조 1) 덕천서원 원장이 되기 전까지 근암서원(1724~1725)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교육과 건물 정비에도 노력하였다. 권상일 가계는 17세기 초반 증조부 權坵가 예천 지금곡에서 근암리로 이주하면서 정착하였다. 가학을 통해 학문을 익혔던 그는 주변의 서원, 향교의 강회나 사찰·서원 등의 거접에 참여하면서 수학하였다. 권상일은 도산서원·도남서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내에서의 위상 또한 높았다(우인수, 「영남 남인 권상일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위상」, 『민족문화논총』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변화하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금령을 피하여 사우로 건립하였다가 서원으로 승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서원과 사우의 제향 기준이 모호해지는 18세기 이후에는 금령을 피하여 사우로 건립했다가 서원으로 승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에 제향하는 인물의 기준은 17세기까지 대체로 잘 지켜졌다.

서원으로의 건립 및 승원에는 사론의 준발 → 향회를 통한 향론의 결집 → 도회 내지 도내 통문을 통한 타읍 유생들의 공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서원 금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방관을 통해 조정의 허가를 받는 과정도 필요했다. 이처럼 서원 건립의 방법은 다양했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공론의 광범위한 수렴과 관의 허가가 필수적이었다.

문경 근암서원은 16세기 중반 죽림서당으로 시작하여 임란이후 이건하면서 근암서당으로 불렸다. 그 후 1665년(현종 6) 홍언충을 제향하면서 향현사가 되었다. 1669년(현종 10)에는 유현으로 칭송받던 이덕형을 병향하면서 향내와 도내의 지지를 받아서 근암서원으로 승원하였다. 이처럼 서당에서 사우로, 사우에서 서원으로 성장하는 근암서원의 변천 과정은 금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이를 피하여 승원했던 서원들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승원 이후 추가로 배향되었던 김홍미·홍여하·이구·이만부·권상일 등은 남인계 인사들로서 도남서원과 더불어 상주 남인계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했음을 나타낸다. 실제 사계승무반대소, 윤지술처벌소 등의 거도적인 유소의 소청이 근암서원에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향촌 사회의 각종 현안에도 의견을 피력하면서 향촌운영기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近岳書堂創建古蹟』(이수환 소장 복사본),
『近岳書院事蹟』(이수환 소장 복사본),
『淸臺日記』(權相一, 한국국학진흥원 번역본)
『商山誌』(1928), 『負暄堂集』(金楷), 『栢潭集』(具鳳齡), 『月澗集年譜』(李興),
『木齋集』(洪汝河), 『竹峯先生文集』(金侃), 『同春堂集』(宋浚吉), 『漢陰文稿』(李德馨).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송시열 문인가문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23, 역사실학회, 2002.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 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김주복, 「식산 이만부의 학문형성과 교류양상 일고찰」, 『한문학보』19, 우리한문학회, 2008.
박인호, 「활재 이구의 역사인식과 현실비판」, 『조선사연구』22, 조선사연구회, 2013.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영남학』2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 활동」, 『민족문화논총』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우인수, 「영남 남인 권상일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위상」, 『민족문화논총』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채광수, 「창녕성씨 청죽공파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원우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오용원, 「한음 이덕형의 후대 평가와 추숭사업」, 『한음 이덕형의 학문과 사상』, 해드림출판사, 2017.
김학수, 「한음 이덕형의 사우 및 교유관계」, 『한음 이덕형의 학문과 사상』, 해드림출판사, 2017.

이병훈, 「16세기 안동지역 재지사족의 성장과 서당 건립 활동」, 『민족문화논총』 6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자료센터 (http://yn.ugyo.net)
유교넷 (http://www.ugyo.net)

Abstract

Transformation of Geunam Seowon[confusian academies in korea] in Mungyeong from 16th to 18th Century

-A One Case of Seowon Change in the Late Chosun Dynasty-

Lee, Byoung-hoon

Mungyeong Geunamseowon was developed in Jookrimseodang and established by Shinjam, governor of Sangju, in the middle of the 16th century. It was called Geunamseodang, reconstructed and mov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renamed Hyanghyunsa as a ceremonial rite and tribute to Hong Eun-chung in the 17th century.

After that, it was elevated to Geunamseowon by enshrining together Lee Deuk-hyung. Geunamseowon showed the growth of Seown from Seodang and was emblematic of Seowons raised from Sau to avoid the period of Seowon prohibition in the 17th-18th centuries.

In addition, Who also enshrined the members of the Namin Party, such as Kim Hong-mi, Lee Gu, Lee Man-bu, and Kwon Sang-il, who became the representative Seowon of Sangju Namin along with Donam Seowon. The fact that the office (Sochung) such as Sagyeseungmubandaeso was established proves it.

keywords
Geunamseowon, Geunamseodang, Jookrimseodang, Youngbinseodang, Lee Deuck-hyung